

A wooden suspension bridge with metal railings extends from the foreground towards the horizon over a blue sea. The bridge is supported by thick wooden cables. In the distance, a group of people is gathered on the bridge. The sky is clear and blue. A large black rectangular box is centered over the image, containing white and green text.

# With KAU Webzine

Twenty six steps

바라 온 것처럼, 바라보도록

새내기성공센터

# 목차 With KAU 함께 이루는 꿈

2023-1 재학생 멘토들의 멘토링 이야기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우가우가” .....	2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자리하자” .....	3
신소재공학과 “최고수준” .....	4
소프트웨어학과 “세아가” .....	5
스마트드론공학과 “페어링” .....	6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A I! can do it” .....	7
공학계열 “낭만공학” .....	8
항공교통물류학부 “윙클” .....	9
항공운항학과 “운항의 민족” .....	10
경영학부 “왕꿈틀이” .....	11
자유전공학부 “비상선언” .....	12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소개	
지구 끝의 온실 : 김초엽 장편소설 .....	13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경영학부 “한우갈비”팀 인터뷰 .....	15
8월 웹진 퀴즈 이벤트	
With KAU 웹진 퀴즈 풀고, 리뷰를 남겨주세요 .....	23
새내기성공센터 2023년 9월 일정	
이달의 행사 일정 .....	26



표지 [©한국관광공사 사진갤러리 - 한국관광공사 이범수] 저작권

[촬영지역 : 강원도 속초시]

With KAU 웹진은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우가우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를 졸업한 ‘항우기’를 유쾌하게 바꾸어 ‘우가우가’로 변형함. 신석기 시대의 집단적인 면모를 가지고 와 팀 모두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짐.

# 우리활동.



3월



6월



## 팀명

## 활동목적

## 참여소감

### ▣ 항우가우가

- ☆ 새내기들의 항공대 적응 프로젝트
- ☆ 전공뿐만 아니라 본인의 관심사 찾기

- ▣ 멘토 : 작년에 멘티로서 참여했을 때 아쉬웠던 것들을 중점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멘티들도 있을 것 같아 역량관리 시스템에 올라오는 팀 참여 프로그램이 있으면 항상 멘티들에게 물어보며 같이 하자고 말했던 것 같다.
- ▣ 멘티 : 1학기 멘토멘티 활동을 하면서 멘토님으로부터 다양한 학교 생활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맛있는 음료도 사주셔서 감사했다. 언제나 궁금한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해주셔서 감사했다.

##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자리하자”

‘자리하자’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자리를 함께 하자는 의미

# 우리활동.



3월

6월

### 팀명

### 활동목적

### 참여소감

#### ▣ 자리하자

- ☆ 대학생활의 낭만을 멘티들에게 전수
- ☆ 앞으로 있을 전공과목에 기초가 되는 과목들의 중요성 강조

- ▣ 멘토 : 멘토로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라 막막했지만 멘티들이 적극적으로 답장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힘이 났다.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전문가 멘토링과 지도교수 간담회도 큰 도움이 되었다.
- ▣ 멘티 : 동기들과 친하게 진낼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좋았고, 덕분에 반 동기들과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다. 전문가 멘토링 및 지도교수 간담회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 신소재공학과 “최고수준”

우리 모두 전반적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가자는 뜻

# 우리활동.



3월



6월



## 팀명

## 활동목적

## 참여소감

### ▣ 최고수준

- ☆ 새내기들이 학교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전하기 위함
- ☆ 선,후배 간의 교류를 통해 좋은 정보 및 관계 형성을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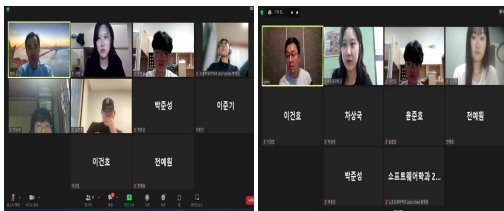
▣ 멘토 : 1학년 신입생, 멘티들을 위해서 이런 저런 활동들과 정보들을 찾으면서 멘토인 내가 스스로 더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실제로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 새로운 멘티들이 3중 멘토링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 멘티 : 솔직히 취업에 대한 정보, 미래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속편하게 물어볼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참 고민이었다. 다른 모르는 선배들에게 무작정 다가가는 것도 힘들지만, 이번 멘토링을 계기로 정말 많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 소프트웨어학과 “세아가”

세아가는 세현이의 아가들을 줄인 말로, 아가처럼 잘 챙겨주겠다는 뜻

#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 세아가

- ☆ 신입생들의 멋진 학교생활 적응
- ☆ 멘토 멘티 간 친목 도모

- ▣ 멘토 : 멘토가 처음이라 서툴렀고 맘만 앞서 생각보다 지루했던 활동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멘토에게 고마워하는 멘티의 모습에 감동받았음. 마음이 따뜻해지는 멘토활동이었음.
- ▣ 멘티 : 새내기에게는 대학교 생활의 모든 점이 다 낯설어서 힘든데, 멘토가 있어서 학교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음.
- ▣ 멘티 : 멘토링 활동 덕분에 좋은 선배와 좋은 동기들을 알게 되고 자주 교류하여 학교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음.

## 스마트드론공학과 “페어링”

서로 친해지면서 이어지자는 의미에서 페어링으로 함

# 우리활동.



]

3월

6월

]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 말랑공덕

- ☆ 서로 기댈 수 있는 멘토·멘티가 되어본다
- ☆ 잡을 건 잡으면서 즐겁게 학교를 다닌다

- ▣ 멘토 : 새내기 멘티들과 즐거운 추억들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고, 멘티들의 학교 생활을 도와주거나 진로고민상담,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 등 다양한 부분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어서 뿌듯했다.
- ▣ 멘티 :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각종 진로나 인간관계 등 새내기 입장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 ▣ 멘티 : 멘토링 활동을 하며 형과 동기들과 서로 의견 등을 주고받으며 훨씬 나의 진로에 도움이되는 방향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 좋았다.

##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A !! can do it”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학생들이 모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 A !! can do it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새내기 추억 쌓기
- ☆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하여 대학생활 노하우 전수

▣ 멘토 : 처음으로 맞이한 후배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 감사하다.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새내기 시절을 돌아보기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은 멘토지만 2학기에는 더 나은 멘토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후배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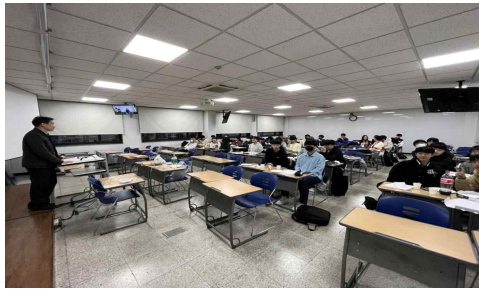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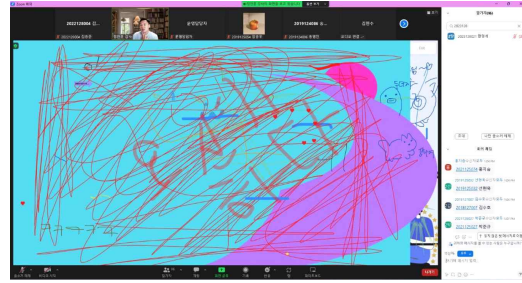
▣ 멘티 : 처음 항공대학교에 입학해서 모르는 게 많았는데 새내기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 공학계열 “낭만공학”

공학계열 학생으로서 낭만적인 대학생활을 해내자는 뜻

# 우리활동.



3월



6월

### ▣ A !! can do it

- ☆ 새내기들의 활기찬 대학생활을 위한 다양한 학교활동 안내
- ☆ 다양한 멘토링활동을 통해 대학생활의 빠른 적응을 도움

- ▣ 멘토 : 멘티들과 친해지고 한 학기 동안 이끌어 가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걱정과 다르게 멘티들이 아주 밝고 쾌활하게 다가와 줘서 순조로운 멘토링 활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멘티들이 학교생활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으면 합니다.
- ▣ 멘티 : 멘토와 멘티가 선후배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멘티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링 활동이 유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 멘티 : 멘토링 활동 덕분에 동기들과 더욱 친해지기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2학기에는 더욱 알찬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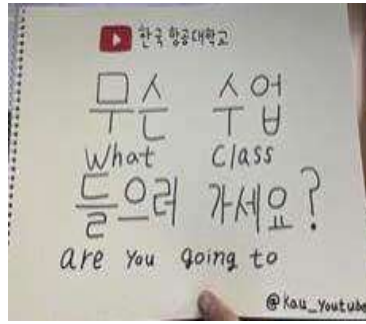
## 항공교통물류학부 “월클”

수강신청부터 학교생활까지 올클해서 월드클래스로 거듭나자는 의미입니다.

# 우리활동.



3월



6월



### 팀명

### 활동목적

### 참여소감

#### ▣ 월클

-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
- ☆ 진로 탐색 및 진로에 대한 인사이트 개발 마련

- ▣ 멘토 : 지난 해의 멘토링과 달리 멘티들의 성격이 더 활발한 것 같다. 1학기때는 친목도모의 기회가 적었지만 2학기에는 더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 ▣ 멘티 : 지방에서 와서 학우들을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 동기들과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 좋습니다.
- ▣ 멘티 :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라 먼저 다가와준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 ▣ 멘티 : 우리 전공과 관련해서도 특히 물류쪽에 인사이트를 넓혀 주신 것이 좋았습니다.

## 항공운항학과 “운항의 민족”

운항학과를 목표로한 멘토멘티들이 모였기 때문에 운항의 민족이라고 지었다.

# 우리활동.



]

3월

6월

]

### 팀명

### 활동목적

### 참여소감

#### ▣ 운항의 민족

☆ 운항학과를 목표로한 멘토멘티들이 모였기 때문에 운항의 민족이라고 지었다.

- ▣ 멘토 :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해서 멘티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다음학기에는 지출비도 조금 나눠서 쓰며 회식을 2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경우로 가고 시뮬레이터와 같은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 ▣ 멘티 : 신입생이었기에 모르는 점이 많았지만 3중 멘토링으로 이러한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 멘티 : 1학기에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동기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 경영학부 “왕꿈틀이”

항공대에서 꿈틀대는 우리는 결국은 왕꿈틀이처럼 성장해있을 것임을 의미.

# 우리활동.

3월  
6월



## 팀명

## 활동목적

## 참여소감

### ▣ 왕꿈틀이

- ☆ 새내기들의 학기초반 학교 적응을 위한 친목 도모
- ☆ 여러 활동을 통한 멘토멘티 간 건강한 학습 및 생각 공유

- ▣ 멘토 : 이번학기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서 새내기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복도에서 만나면 친구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소소한 점이 가장 좋습니다. 2학기 때는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어서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 멘티 : 멘토멘티 활동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몰랐는데 저희조는 잘 묻치고 또 멘토님께서도 잘 도움주셔서 학교 적응이 원활했습니다. 2학기 때도 저도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했습니다.

## 자유전공학부 “비상선언”

비상선언 팀의 멘토와 멘티들은 각자 꿈꾸는 분야에서 비상(飛上)할 것을 선언합니다

# 우리활동.



3월



6월

## 팀명 활동목적

### ▣ 비상선언

- ☆ 새내기들이 희망하는 학부/학과로 전과할 수 있도록 학업 및 학교 생활 조언
- ☆ 자유전공학부 멘티들 간의 유대감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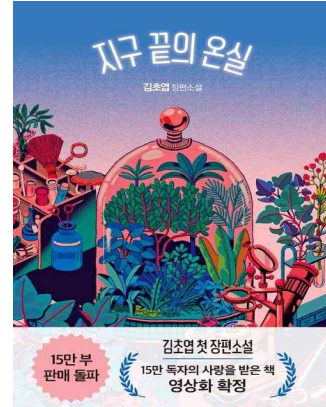
## 참여소감

- ▣ 멘토 : 학기를 시작할 때는 멘티들과 함께 하고 싶은 활동이 정말 많았는데 시간 조율이 어려워 자주 만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2학기에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더 좋은 멘토를 만나 학교 생활을 알차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멘티 : 멘토님께 질문을 많이 해서 귀찮으셨을 법도 한데 대답 잘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학교에 편한 선배가 생긴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소개

“악마의 식물이 내 정원에 자라고 있는데, 이거 혹시 멸망의 징조 아니야?”

덩굴식물이 뻗어 나가는 곳, 그곳에 숨겨진 기묘한 이야기



“악마의 식물이 내 정원에 자라고 있는데, 이거 혹시 멸망의 징조 아니야?”

덩굴식물이 뻗어 나가는 곳, 그곳에 숨겨진 기묘한 이야기

소설은 총 세 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모스바나’에서 독자를 기다리는 인물은 2129년 더스트생태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식물생태학자 아영이다. 그는 느리지만 멀리까지 뻗어 나가는 식물들, 그리고 그 안에 깃든 놀라운 생명력과 기묘한 이야기에 매료되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과학자로서의 원칙을 잊지는 않지만, 남몰래 괴담을 좋아하여 ‘스트레인저 테일즈’에 접속하는 게 취미인 그다.

어느 날 아영은 폐허 도시 해월에서 덩굴식물 모스바나가 수상할 정도로 빠르게 증식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알 수 없는 푸른빛까지 목격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어린 시절 이웃에 살던 노인 이희수의 정원에서 본 풍경을 떠올린다. 방치된 듯 잡초가 무성한 한밤의 정원, 그 위에 마법처럼 떠 있던 푸른빛들을. 대체 왜 갑자기 모스바나가 이상 증식하기 시작한 걸까, 그리고 푸른빛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는 모스바나를 채집하여 분석하는 한편, 스트레인저 테일즈를 통해 이 식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수소문한다. 마침내 그는 더스트 시대에 모스바나를 약초로 활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랑가노의 마녀들’이라고 불려온 아마라, 나오미 자매에게 닿게 된다. 아영은 그들로부터 어떤 이야기

를 반드시 듣고자 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곳이 있는 거예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돔 바깥에서는, 모두 다 죽었다고요.”

멸망한 세계 속 유일한 도피처, 그리고 비밀스러운 온실

‘2장 프림 빌리지’에서 독자가 만나는 인물은 2058년 더스트로 멸망해버린 세계를 헤매는 아이 나오미다. 붉은 안개와 함께 찾아오는 더스트는 살아 있는 존재라면 무엇이든 순식간에 죽게 만든다. 사람들은 돔을 씌워 그들만의 도시를 만들고, 유지를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 더스트에 내성을 가진 탓에 피를 원하는 사냥꾼들에게 쫓기고, 실험 대상이 되어 고통받아온 나오미는 언니인 아마라와 함께 소문 속 도피처를 찾아 숲으로 향한다.

마침내 자매는 돔 없이, 내리는 비와 불어오는 바람을 고스란히 맞고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프림 빌리지에 도달한다. 이곳은 거창한 이념이나 명분 없이 그저 사람들의 충실한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리더인 지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언덕 위 온실 속에 사는 식물학자 레이첼이 건네는 작물들과 더스트 분해제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 나오미는 믿을 수 없이 생기로운 숲속의 마을에 점차 스며든다.

하지만 평화란 영원할 수 없는 법. 프림 빌리지

에 침략자들이 나타나고, 지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준비해둔 식물들을 나누어주며 멀리 떠나라고 이야기한다. 숲 바깥으로 가서 식물들을 심고, 또 다른 프림 빌리지를 만들라고. 마을을 떠나며, 나오미는 아마도 마음이 평생 이곳에 붙잡혀 있으리라 예감한다.

**“아마도 나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다.”**

**어떻게 이처럼 작은 우리가 서로를 구할 수 있는 걸까?**

‘3장 지구 끝의 온실’에서 독자들은 아영을 다시 만난다. 세계가 재건된 이후를 살아가는 아영은 멸망의 시대 한복판을 지나온 나오미의 증언을 들으며, 이제껏 머릿속에 따로 존재해왔던 수많은 퍼즐들이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나오미의 증언을 정리하고 데이터들로 뒷받침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아영은 묻혀 있는 진실을 찾아야 하는 과학자로서, 또 내밀한 기억과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서 각각 뚜렷한 결론에 도달한다. 독자들이 아영과 함께 이 결론에 다다랐을 때, 마음속에서는 어떤 작용들이 일어날까.

한 작가의 첫 장편소설이 품고 있는 것들은 말하자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순수한 탐구심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대상에 열과 성을 다하는 과학자들, 세대를 달리하는 인물들이 존중과 존경으로 함께 나누는 대화, 세상의 풍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식물들의 모습, 매일같이 지구의 위기를 실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품음직한 태도, 예상하지 못했던 애뜻한 사랑의 이야기…… 하지만 무엇보다 『지구 끝의 온실』이 향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나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다”(389쪽)라는 작가의 말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이다.

독자들은 이미 작가의 첫 작품집을 통해 그가 얼마나 정확하고 부드럽게 이 마음을 탐구하고, 미처 자신에게 있는 줄도 몰랐던 지점에 가 닿게 하는지 경험한 바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떤 마음들 때문에 어긋나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구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작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구 끝의 온실』은 구하는 이야기, “탁월한 개인, 위대한 발견,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기억하며 지킨 작은 약속, 매일을 함께하는 동안 다져진 우정, 시간에 깎여나가지 않고 살아남은 사랑”(황예인 문학 평론가)이 서로를 구하게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3중멘토링 멘토&멘티 인터뷰  
“한우갈비”팀  
이지연멘토, 성은비멘티, 박승현멘티



새내기성공센터에서 시행하는 3중멘토링 프로그램은 신입생과 재학생선배, 외부전문가멘토, 지도교수멘토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KAU 3중 멘토링 멘토-멘티 인터뷰 26호에서는 경영학부 "한우갈비"팀의 이야기를 담아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터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1.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지연 멘토**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21학번 멘토 이지연입니다. 현재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며, 항공경영 융합 전공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저번 학기부터 새내기 멘토로 활동을 했었고, 또 다른 교내 활동으로는 교환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글로벌 버디로 2년째 활동 중입니다. 제가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당시 너무 좋은 멘토 언니를 만나게 되었고, 저도 언니처럼 후배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에 새내기 멘토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희 멘토링의 팀명은 한우갈비인데, “한 마음으로 우리는 갈수록 비상하리”라는 뜻으로 멘토와 멘티가 함께 2023년을 끝내주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팀명을 짓

게 되었습니다. 저번 학기(2022- 2학기)에 이어서, 파릇파릇하고 귀여운 새내기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다보니 벌써 한 학기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성은비 멘티** :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23학번 성은비입니다. 한우갈비팀에서 지연 언니의 오른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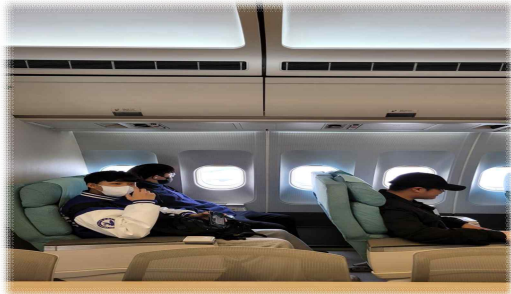
**박승현 멘티** : 저는 팀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박승현이라고 합니다. 다방면에서 멘티들을 도와주고 있으며 멘토님께서 프로그램이나 활동 등을 추진하시고자 할 때 제일 먼저 그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멘티들과 만나 사담을 하거나 교제하고 있으며 멘토님께서 다소 신경 쓰시기 힘든 멘티들의 사소한 부분을 챙겨주며 조금이나마 멘토님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Q2. 3중멘토링을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참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지연 멘토 :** 작년에는 2학기부터 멘토를 맡게 되어, 누구보다 걱정과 설렘을 가득 가지고 멘토링을 시작했었습니다. 한 학기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누구보다도 멘티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좋은 추억을 다양하게 만든 것 같아 뿌듯함이 컸습니다. 작년에 감사하게도 최우수 멘토로 뽑히게 되어 행복함을 가득 안고 많은 멘토 분들 앞에서 최우수 성과확산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듯 3중 멘토링은 저에게 너무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활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온전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새로운 멘티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2023-1학기)에도 최우수 멘토로 뽑히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기도 합니다.



**Q3. 학기 초 우리 멘토, 멘티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이지연 멘토 :** 멘티들 한 명, 한 명이 저에게 있어 소중한 존재이지만 승현이와 은비는 그중에서도 제가 많이 아끼는 멘티들입니다. 풋풋한 스무 살에서 나오는 밝은 에너지, 앳되고 귀엽게 생긴 얼굴, 모델처럼 큰 키 등이 공통점을 가진 친구입니다. 멘토링 조의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승현이는 저와 MBTI가 같고, 성격적으로 비슷한 점도 많은 친구입니다. 단톡방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누구보다 멘토의 말에 바로

바로 대답을 해주기도 했고, 서로 낯가리는 첫 개강 파티부터 지금까지 멘토링 분위기를 저와 같이 이끌어주었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힘이 들 때도 멘토를 걱정해주며 자신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던 고마운 멘티입니다. 멘토링 조의 부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은비는 유일하게 임시 멘티에서 정식 멘티로 지금까지 계속 함께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항상 우리 멘토가 최고라고 말해주며, 멘토링 활동에 있어서 저와 항상 함께 해주었습니다. 무엇이든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기뻐합니다. 때로는 든든하게 제 뒤에 서서 제가 멘토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었던 고마운 멘티입니다.

**성은비 멘티 :** 놀라운 우연으로 저만 지연 언니를 정식 멘토로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임시멘토로 알게 되어 일면식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카톡으로밖에 보지 못했지만, 텍스트 너머로도 굉장히 친근하고 상냥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교수님이나 수강신청에 관해 궁금한게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박승현 멘티 :** 멘토님의 첫인상은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물론 친해지면서 더 알게 된 부분도 있지만 처음 봤을 때 멘토님의 인상은 똑 부러지는 선배 그 자체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멘토님께서는 말보다 행동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입니다. 앞서 말했던 말과 같이 멘토님께서 지금도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시는

분이며 말보다 행동으로써 증명하시는 분입니다. 멘티들의 첫인상은 반대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되게 차분해 보이던 친구가 실은 매우 밝게 웃을 수 있는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뚝뚝해 보이던 친구가 이리도 말이 많아질 수 있는 친구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유리처럼 여린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열정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불타는 유리 같은 멘토라고 표현했습니다.

**박승현 멘티 :** 우리 멘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입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좋아한다는 것에는 그에 응하는 대가를 요구하지만 사랑은 대가 없이 그저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멘토님의 진심을 알 방도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느낀 멘토님이라는 사람은 대가 없이 호의와 관심을 주실 줄 아는 분입니다.

**Q4. 우리 멘티를 또는 우리 멘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지연 멘토 :** 우리 멘티들을 저는 성실한 뼈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면으로 멘티들을 처음 봤을 때, 너무 귀여운 병아리들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01년생인 친구 한 명을 제외하고, 6명의 멘티 친구들이 모두 04년생인데 멘토인 제가 00년생이라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 너무 풋풋하고 새싹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처음 만난 선배가 저라서 그런지, 다들 선배님이라는 호칭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멘토님 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나서 본인도 아차! 하는 표정을 보았을 때 너무 귀여웠습니다. 뼈약이 단어 앞에 '성실한'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대부분 멘티가 어미 닭인 멘토를 믿고 멘토가 주관하는 활동을 성실하게 잘 따라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Q5. 멘티와 친해지기 위해서나 원활한 멘토링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이 있으신가요?**

**이지연 멘토 :** 대학교에 처음 와서, 모든 게 다 낯설고 어려워하는 새내기 친구들에게는 멘토의 말 한마디와 조언이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바쁘더라도 멘티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려고 했습니다. 또한, 멘토와 멘티, 멘티와 멘티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대면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학교 캠퍼스 투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개강 파티, A300 비행기 견학을 초반에 하면서

**성은비 멘티 :** 불타는 유리 같은 멘토! 멘티들의 참여가 원활하지 않아 굉장히 속상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 생각보다 더

멘티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또한, 멘토와 멘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퀴즈를 멘토가 만들어서 다 같이 골든벨 형식으로 풀기도 했고, 멘토의 친구인 우즈베키스탄 신입생 친구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항공박물관으로 봉사를 가기도 했으며 봉사가 끝난 이후에는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멘티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요즘 학교생활은 어떤지 등등 너무나 일상적인 내용이지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새내기 성공센터에서 주관하는 진로 가치관 카드 검사, 디톡스 명상대회 프로그램에 멘티들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는데, 바쁜 학교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힐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활동을 했지만, 저는 승현, 은비 멘티가 드럼을 연주한다고 해서 동아리 공연을 관람하러 갔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멘토인 제가 알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한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아이들이 기특하기도 하여 열심히 영상과 사진을 찍어주면서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내기 성공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모전도 많고, 이 중에서는 멘토와 멘티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모전이 있으니 많은 멘토-멘티 친구들이 참여했으면 좋겠

습니다. 저와 승현 멘티도 1학기에 KAU SPACE 핵심역량 설계 공모전에 참여했는데, 서포트한 승현 멘티가 최우수상까지 타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다 같이 추억을 쌓을 수 있고, 수상을 하게 되면 장학금까지 탈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Q6. 이번 3중멘토링을 통해 느낀 점이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이지연 멘토 :**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책임지고 이끈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멘티들까지 협조적이지 않다면 멘토링이 좀 버겁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너무 착하고 성실한 멘티들을 만나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던 만큼, 올해에도 많은 기대를 하며 멘토링을 시작했지만, 사람이 다 다르듯 속상하게도 기본적인 연락이 잘 안되거나 참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멘티들이 있어서 힘들기도 하고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힘든 일도 참 많았던 이번 멘토링이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멘토의 노력과 진심을 알아주는 멘티들이 있어서 그 멘티들의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힘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자신이 아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후배들을 도와주는 경험, 후배들이 처음 겪어보는 일들을 멘토인 저와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정말 의미 있고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멘토링 활동을 잘 따라오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멘토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처음에 자신이 왜 이 3중 멘토링을 신청했는지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힘을 내 3중 멘토링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성은비 멘티 :** 가장 큰 달라진 점은 스스로가 학교 비교과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역량관리시스템에서 혼자서 이것저것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학기 중에는 지연 언니가 기획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주간 일기 쓰기는 처음엔 조금 귀찮았어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현 상황에 대해 성찰할 수 있게 해줘 좋았습니다. 점점 여러 활동들이 쌓이면서 단지 학교생활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향후 인생을 어떻게 계획해야 할 지 틀을 잡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연 언니가 지난 학교생활을 통해 느끼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공부나 고민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어서 고마웠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같은 한명의 멘토 밑의 멘티들이라도 각자 성향이나 생각들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크게 느꼈고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을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승현 멘티 :** 3중멘토링을 통해 달라진 점이라면 제 스스로가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많은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배와의 친분을 쌓는 데에 어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멘토 선배와 선례를 통해 이후 선배들과의 관계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른 것 같습니다.



**Q7. 3중멘토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지연 멘토 :** 저에게 있어서 3중 멘토링이란 성장의 발판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며 내적으로 성장하고, 후배들을 통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보고 배우며 또 성장하고, 졸업생 선배들과 교수님들의 말씀에 같이 귀 기울이며 외적으로 성장하고, 현직 전문가님들이 알려주신 진로 정보를 가지고 해답을 찾아가며 다시 한번 성장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성은비 멘티 :** 등록금을 알차게 쓸 수 있게 해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티들 사이에서도 돈독해지는 기회가 되어 좋았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하고 알찬 행사의 참여로 행복하고 특별한 기억을 남겼습니다. 더 나아가 제 자신을 성장시키게 해주어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현 멘티 :** 3중멘토링의 핵심은 정보 제공에 있습니다. 3중멘토링을 통해 대학에는 다양한 시스템과 인프라가 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시

시스템과 인프라가 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좀 더 수월한 대학 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을 금전적으로나 진로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려는 대학교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3중멘토링은 대학에 처음 발을 들인 새내기들에게 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3중멘토링은 멘티와 선배인 멘토와의 친분을 쌓으며 같은 과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들거나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Q8. 이번 달은 멘토-멘티간 어떤 주제로 대화하셨나요?**

**이지연 멘토 :** 이번 달에는 수강지도 상담하는 방법을 안내하였고, 장바구니 및 수강신청에 관해 대화를 주로 나누었습니다. 멘토의 경험상 한 학기 동안 듣는 수업을 담는 장바구니와 본 수강신청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대 이수 학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어떻게 학점을 조율해서 들으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교양에 대해서도, 제가 경험한 내용 또는 동기들에게 들었던 후기들을 토대로 상담해주었습니

다. 또한, 같은 전공 수업이지만 어떤 교수님을 수강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멘티들에게 수업과 시험 스타일에 대한 정보도 전달해주었습니다. 멘티들이 본인에게 맞는 교수님 스타일을 찾아서 좀 더 쉽고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었고, 멘티들이 만든 시간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성은비 멘티 :** 장바구니 및 수강신청에 관해 대화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표를 학교에서 짜주던 1학기과 달리 장바구니 수강신청부터 본 수강신청까지 전부 혼자 해야 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교수님과 과목들에 대한 정보도 적고 두 수강신청의 차이점이 뭔지 제대로 몰라서 헤매고 있던 때에 필요한 정보들을 주셔서 원활하게 이해하고 고민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수강신청이 이뤄져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멘티 :** 수강신청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까딱하면 수강지도상담을 받지 못해서 수강신청 자체를 못할 뻔 했는데 멘토님께서 알려주신 연유로 2학기 시간표를 성황리에 잘 짤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융합 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 전과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방학 동안에 1학년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

지에 대해 이야기도 해보았으며 진로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며 나의 식견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Q9. 2학기에 멘토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지연 멘토 :** 저는 매 학기 멘토링 활동을 시작하기 전, 학교의 공식적인 일정을 참고하여 주차별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편입니다. 이렇게 미리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으면 멘토링의 큰 틀이 잡힌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일정을 짜기가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체계적으로 활동하기 좋으므로, 학교 일정을 참고하여 활동계획을 미리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았고, 이는 멘토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멘티들도 한 학기 동안 멘토링을 하면서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번 2학기에는 1학기 때 하지 않았던 활동들을 새롭게 해보고, 1학기 때 하면서 좋았던 활동들은 계속 진행해나갈 것 같습니다. 종강 파티 때 미리 멘티들에게 하고 싶은 활동을 물어보기도 했는데, 전시회 관람이나 영화 감상을 하고 싶다고 해서 꼭 실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학기 학교생활을 하면서 함께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멘토링은 멘토 혼자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멘티와 하나가 되어 함께 나아가며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멘토 입장이다 보니 제가 겪으면서 깨달았던 좋은 것들을 후배들에게 하나라도 더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제 멘토링이 활동적이라 부담으로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서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내리사랑 느

낌이 들어서, 참여가 적더라도 그 적은 참여 속에서 그 친구가 재밌고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후배들이 처음 겪어보는 일들을 멘토와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그 자체로 정말 의미 있고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2학기에도, 1학기에 잘 해왔던 것처럼 귀엽고 파릇파릇한 새내기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Q10. 멘토-멘티 서로에게 어떤 멘토-멘티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이지연 멘토 :** 저는 멘토링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말들이 있습니다. “멘티들에게 도움을 주는 멘토, 소통이 잘 되는 멘토,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멘토가 되자”입니다. 작년에 제가 맡았던 멘티들을 종종 만나는데, 저를 볼 때마다 “진짜 울 멘토 언니가 최고였어. 다른 멘토링 친구들도 우리 멘토링 부럽다고 항상 그랬는데... 언니처럼 진심으로 우리를 아끼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어.”라는 말을 해주고는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진심이 멘티들에게 잘 전달되었다는 생각에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23학번 멘티들이 시간이 지나 선배가 되었을 때, “1학년 때 추억도 많이 쌓고 재밌었지. 우리 멘토

언니/누나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라고 말해주고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멘  
티들이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기억하  
며 안고 갈 수 있는, 소소하지만 재밌고  
즐거운 추억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성은비 멘티** : 멘토링 활동이 헛되지 않았구  
나 하는 생각을 갖고 끝까지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고, 덕분에 작년에 이어 23  
학년도 멘토링 또한 좋은 기억을 남게 만  
들어 준 멘티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박승현 멘티** : 그저 괜찮은 사람으로서 기억  
되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으로서 기  
억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제가 어떤 사  
람으로 기억 되는지 보다 멘티들에게 있  
어, 저와 만나는 순간만큼만이라도 그 멘  
티가 저와 교제하며 조금 더 나은 방향으  
로 나아갔으면 하고 바랄 따름입니다.



# With KAU 8월 웹진 퀴즈 EVENT

Q. 다음 중 학부생이 중앙도서관 이용시  
대출 권수와 기간이 맞는것은 ?

- ① 4권, 8일
- ② 6권, 10일
- ③ 8권, 12일
- ④ 10권, 14일

참여방법

메일송부 (kaussc@kau.ac.kr)  
인적사항은 학번+성명+핸드폰번호

응모기간

2023.08.23 ~ 2023.09.20

당첨자선물

정답자 추천하여 소정의 기프티콘 발송

당첨자발표

With KAU 27호



# With KAU 7월 웹진 퀴즈 EVENT 당첨자

A. ① KAU 전문인재 양성  
장학금

2023\*\*\*\*54 정○철

2023\*\*\*\*86 인○형

2023\*\*\*\*64 박○홍

2023\*\*\*\*77 이○영

2021\*\*\*\*51 이○재



※ 제출한 핸드폰 번호로 기프티콘 발송

# With KAU

## 멘토&멘티 참여코너

With KAU 웹진에 멘토&멘티가 참여하는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3중멘토링인터뷰, 도전 백주부, KAU 백일장 코너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수록해주세요

코너명	코너소개	참여선물
멘토&멘티 인터뷰	월별 3중멘토링 활동에 대한 인터뷰를 합니다. 신청하신 멘토 또는 멘티에게 센터의 전문멘토가 취재하여 활동내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도서상품권 (5만원)
도전 백주부	시기에 맞는 요리 및 레시피를 소개해 주세요	
KAU백일장	월별 멘토&멘티가 직접 쓴 독서감상문, 여행기, 수필 등 자유로운 내용을 소개합니다. "내용, 주제 자유"	

응모방법 : [kaussc@kau.ac.kr](mailto:kaussc@kau.ac.kr)

문의전화 : 새내기성공센터 02-300-0250~1



# 2023년 9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lan	Plan	Plan	Plan	Plan	1 Plan 2023-1 활동계획서 제출마감	2 Plan
3 Plan	4 Plan 멘토활동 아이디어공모전	5 Plan	6 Plan	7 Plan	8 Plan	9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10 Plan 2023-2 어깨동무멘토링 접수마감	11 Plan	12 Plan 일상기술미특강 KAU 와인데이	13 Plan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한미당	14 Plan	15 Plan 2023-2 활동비장학금 지급	16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17 Plan	18 Plan	19 Plan	20 Plan	21 Plan 2023-2 명량운동회	22 Plan	23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24 Plan	25 Plan KAU UCC 공모전접수마감	26 Plan	27 Plan	28 Plan	29 Plan	30 Plan



[새내기성공센터 유튜브 채널]

# Follow

# us:

<http://fsc.kau.ac.kr>

**now  
ONLINE**



**KOREA AEROSPACE UNIVERSITY  
FIRST YEAR SUCCESS CENTER**

